

“광주FC 12번째 선수랍니다”

광주 FC 마스코트 풍암고 김희원 양

지난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 FC와 고양 HI FC 두 팀 간의 K리그 철린지 18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지만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관중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장 입구에는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광주 FC축구팀 마스코트 ‘화나’와 ‘보니’가 손을 흔들며 팬들을 맞고 있었다. 한여름에도 캐나다 탈을 쓴 텔복송이 복장으로 경기가 끝날 때까지 4시간 가량 철새없이 움직여야 하는 마스코트는 체력적으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광주 FC 마스코트 중 담당자가 매번 바뀌는 ‘화나’와 달리 ‘보니’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은 가녀린 외모의 광주 풍암고 2학년 김희원(17)양이다.

“홈경기가 열리는 날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보니로 변신해요. 마스코트를 알리기 위해 90분 내내 탈을 쓰고 응원하며, 경기 중간 중간 경기장을 한 바퀴 돌고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져요. 그렇지만 보니를 알리고 광주 FC를 알릴 수 있어 보람있어요.”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바쁜 시기이지만 축구에 대한 마음만큼은 남다르다. 지난 2011년 3월 광주 FC창단 첫 계약부터 3년 동안 모든 홈 경기를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했다. 국내외 선수들의 이름은 물론 전문용어들까지 인터뷰 내내 그녀의 입에서는 축구 이야기가 술술 나왔다. 광주 FC 마스코트이자 열성팬으로 틈날 때마다 원정 응원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축구 사랑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취학아동’이었어요. 축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리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응원하는 것을 보며, ‘축구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죠.”

2002년 월드컵의 명승부는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가족과 거리 응원을 다니며 축구의 매력을 배울 줄었다. 응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이 열리던 시기부터다.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모든 경기를 행여봤고, 끝난 후에는 해외 프로축구팀들의 경기를 보느라 새벽까지 잠 못 이룬 적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K리그 경기를 접했다. 해외 프로축구와는 다르지만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직접 보며 응원할 수 있는 K리그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기 시작

했다. 이후 특정 선수나 팀이 아닌 K리그 전체를 좋아하게 됐다. 특히 광주를 연고지로 하고 창단 때부터 함께 한 광주 FC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다. 지난해 광주FC가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팀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다. 오히려 ‘진짜 팬’이라면 경기 승패를 떠나 진심으로 응원해야한다고 광주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아이들 그룹을 한창 좋아할 나이인 17살 여고생 김희원 양. 그러나 틀에 짜인 안부의 아이들 가수보다 인디밴드 스탠딩에 그의 ‘시간이 달라서’란 곡을 좋아하며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축구를 보는 게 더 좋다며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축구는 곧 내 삶’이라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공부해 광주 FC를 알리고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게 돋고 싶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국제라이온스협회, 김병기 국제이사 당선 축하연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회장 배영모)는 최근 광주 서구 농성동 라이온스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3~2015 김병기 국제이사 당선 축하연을 가졌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동아병원-남부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



광주동아병원(대표원장 서승권)은 최근 광주남부경찰(서장 이기욱)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맺었다. 이 제도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특혜점수(10점)를 받는 제도다.

광주 서부소방서, 책임자 소방안전 간담회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임근술)는 최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정렬기자 halo@

“오빠 찾아 44년만에 고향 왔어요”

목포출신 네덜란드 입양아 정미승씨 오늘 광주 방문

목포 출신 네덜란드 입양아가 친오빠를 찾으려 44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충현원은 네덜란드 입양아 정미승(여·44)씨는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남매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자 오빠인 철승 씨는 목포 보육시설 공새원에, 미승 씨는 광주 충현원에

원에 맡겨졌다. 1973년 충현원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키우며 지냈지만 가족에 대한 그 리움을 떨칠 수 없었다.

16년 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수소문 끝에 미국에 거주하던 친어머니를 찾았다. 이어 공생원을 찾아 오빠의 흔적을 찾았지만 ‘1979년 직원훈련원에 입소했다’는 기록만 찾을 수 있었다.

기록에 남아있는 오빠의 주민등록

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빠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포기를 생각하던 찰나에 많은 입양아들이 충현원을 통해 혈육을 찾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게 됐다.

정씨는 곧바로 충현원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들과 어를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 정씨는 가족과 함께 광주와 목포를 둘러본 뒤 한 달간 전국을 돌아볼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왕년의 금메달리스트들 자장면 봉사

스포츠봉사단 광주전남지회, 진도서 나눔행사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구성된 스포츠봉사단(단장 황영조)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을 찾아 ‘사랑의 금메달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었다.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씨를 비롯한 10여명의 스포츠 스타들은 이동진 진도군수 등과 함께 밀가루를 반죽하며 짜장면을 만들었다. 직접 만든 짜장면 1000그릇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장오용 광주전남지회장은 “어르신들이 금메달 짜장면을 드시고 청정 지역 진도에서 100세까지 무병 장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16년의 전통의 스포츠 봉사단은 지난 1998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해마다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짜장면 나누기 등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이재욱 전남일보 신임 사장

이재우(35) 총대주기공 대표이사가 전남일보사 제7대 사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이재우 사장은 미국 브라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8년부터 대주기공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신임 사장은 전남일보 회장을 역임한 고(故) 이정일 전 국회의원의 차남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탤런트 박용식씨 별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밝은 배우로 유명한 박용식 씨가 지난 2일 서울 경희대병원에서 폐 혈증 증세가 악화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고규석(코트라 전문위원)·정광숙씨 아들 영일군 정영준(해양도시 가스 사장)·한미옥씨 딸 승민양=10일(토) 오후 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 1층 하모니볼룸.

▲배귀대(경주배씨 광주종친회 부회장·재배 영암한우회 사무국장)·장길남씨 장남 용선군 정용채·김숙희씨 장녀 혜린양=10일(토) 오후 2시 STA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황의순(법무부 범죄예방 협의회 회장)·이정자씨 아들 민군 박병각((주)엘파이텍 대표이사)·한화정씨 딸 주현양=10일(토) 오후 5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종친회

▲김해김씨 선무원종공신 오재공 종종 정기총회(회장 김정태)=5일(월) 오전 11시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여신당 061-473-2033.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운영위원회의 개최=7일(수)

오전 11시 50분 종회사무실(회관 3층) 062-228-336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립여성가족센터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립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

우편의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안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기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 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노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술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3609-8117, 062-670-2161, 2135.

▲‘함께 앱아요! 함께 키워요! 기정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맘보ют센터 실사동호회 회원=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2030, 010-4906-8904.

▲골드원 여성 팝스 중창단=노래 쇼코칭2급 교육 개설 안내=9일~10일

일·16일·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대상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장소는 협회교육실(광주 북구 두암동 569-16 5층) 062-652-0675, 010-8299-623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음택·수택·나경·입학문, 비결록명당·장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 강의(책자료 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함께 앱아요! 함께 키워요! 기정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맘보ют센터 실사동호회 회원=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2030, 010-4906-8904.

▲골드원 여성 팝스 중창단=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역, 규방공예 등, 총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증, 체육활동 등) 062-231-8901.

▲박동욱씨 별세 일석·준석씨 부친상=발인 5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비만증,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불링장 건물 1층 062-651-1175~6.

부음